

지역 소식통

고창군, 꿀벌 증식 생존환경 조성 박차

고창군이 기저재 등을 대폭 지원하며 양봉산업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내 꿀벌 증식과 생존환경 조성을 위해 양봉 기저재 등 5종에 2억8,400만원을 지원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100대 농산물 중 약 71%가 꿀벌을 매개로 수분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꿀벌이 사라질 경우 과일·채소 등 생산량이 줄어서 식량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안정적인 꿀벌의 생존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꿀의 생산량 증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벌봉 2415군, 유체화분 2만662kg, 꿀 보관통 33대, 말벌포획기 58개, 소초광 2만4,325개를 지원한다.

또 양봉협화와 울력해 혁신제품인 자동탈봉기의 시범사용을 적극 추진한다. 체밀과정에 드는 노동력을 줄이고 체밀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스카우트 지도자 훈련 초·중급과정 개최

부안군은 2023년 8월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간 줄포만갯벌생태공원에서 스카우트 지도자훈련 초·중급과정을 개최했다.

이번 지도자훈련은 부안군민 21명이 참여하였으며 텐트숙박, 자체취사 등 스카우트 아영활동 등 기반으로 한 세계스카우트 연맹의 지도자교육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1인1텐트 사용, 소그룹 반활동 등 철저한 방역 속에서 진행되었다.

훈련에 참여한 한 군민은 "이번 훈련을 통해 스카우트와 잼버리에 대해 폭넓게 이해 할 수 있었으며, 부안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세계잼버리에 꼭 참가하여 172개국 5만여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다시 찾고 싶은 부안으로 기억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산길 따라 물길 따라'

걷기 좋은 73km '여백의 길' 개통

고창군에 걷기좋은 마을길이 만들어졌다. 훼손되지 않는 주변의 물과 숲, 역새풀이 높지 않은 언덕길과 어우러져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산책길이 탄생했다.



지난 15일 고창군 등에 따르면 최근 '여백의 길'로 이름 붙여진 73km 길코스스가 완성됐다. 전국에서 제일 넓은 구릉지 형태의 사이로 난 길이다.

길은 성송, 공음, 무장, 대신의 앞글자를 따 '성공무대길'로도 불리고 있다. 길 위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녹아 있다. 시작점인 성송면은 동학농민혁명의 가장 큰 시령부 격인 순화중포가

있던 곳이고, 공음면 개갑장터는 만민평등을 주창하며 동학과 서학이 함께하는 국내유일의 종교성지다.

무장면은 호남방어의 요충지로 비격진전회가 출토된 무장읍성이 자리하고 있고, 대신은 광활한 아산개밭로 수박과 멜론 등

전국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고창 농업의 중심지다.

고창군과 지역주민들, 걷기전문가 등은 지역 향토전문가와 역사학자의 자문을 거쳐 인문학적 스토리를 구성했다. 길에서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하천과 들길을 따라 생태체험을 하고,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힐링의 길인 셈이다.

벌써부터 '여백의 길'은 소문을 듣고 방문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여백의 길은 방문자가 홈페이지(www.yedakroadkr)를 통해 길동무를 신청하면 함께 걸으며 안내하는 길동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여백의 길'을 기획한 정민호 작가는 "길이 갈수록 여백의 길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친환경 인증비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유통 확대

정읍시, 생산·가공·유통 주체의 경영비 부담 완화 기대

정읍시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올해 8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역 농가의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와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 인증비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는 매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신청료와 심사관리비 등으로 건당 4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이에 따라 시는 친환경농업의 생산·가공·유통 주체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으로 건당 3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178 농가(유기농 93개 농가 177ha, 무농약 85개 농가 109ha)이다.

시는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 외에 유기 가공식품과 취급자에 대한 인증 비용도 지원한다.

유기 가공식품과 취급자 인증 지원은 실소요 비용의 85% 수준으로 유기 가공식품의 인증비는 건당 100만원, 취급자 인증비는 건당 55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정읍지역에는 친환경 가공식품 12개, 취급자 7개 업체가 있다.

유기 가공식품은 유기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원료로 사용해 제조·가공·유통하는 제품이다. 제조

업체는 매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민간 인증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은 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취급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단순 처리해 포장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 유통업체 등이 해당한다. 취급자 또한 매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민간 인증기관으로 심사를 거쳐 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정읍지역 친환경 인증 농가와 가공·유통 업체의 경영비가 연간 8,000여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희망 농가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유기 가공업체 인증서', '친환경 농산물 취급자 인증서' 등의 관련 자료 사본과 신청서를 각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기적의 도서관, 특성화도서관 육성사업 공모 선정

정읍시 기적의 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2년 특성화도서관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특성화도서관 육성사업'은 도서관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의 문화 요구에 대응 특정 분야를 전문화해 차별화된 서비스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적의 도서관은 이번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천만원을 투입해 '예술로의 힐링'이라는 주제로 전문적

이고 차별화된 강연과 체험 등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별도의 인터리어를 통한 특색 있는 자료실 공간을 조성하고, 미술과 음악 등 다채로운 예술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5월 3일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 진행되며,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야간과 주말에 운영된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는 ▲마음을 치유하는 컬러테라피 ▲나에게 맞



는 컬러체험 ▲초보자들의 힐링 미술 작품 ▲작품 속으로 떠나는 힐링 ▲미술작품 속에서 본 내 심리와 이해 ▲위로·사랑·감정·여행의 클래식 등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참석한 JTV 경선 후보자 토론회의 한 장면.

유진섭 정읍시장 예비후보, TV 토론회 참석

유진섭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예비후보의 정책 수립과 시행을 대하는 진솔한 접근법이 유튜브로 생방송된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고스란히 녹아내리면서 주목받았다.

유진섭 예비후보는 14일 오후 3시부터 JTV전주방송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정읍의 각종 현안과 관련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정책 위주의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 다년간의 의정 경험과 행정 경험을 겸비한 능력 있는 후보이면서 진솔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취임 후 4년이 되어가는 지금 "정읍은 변화의 큰 중심에 들어 있다"라며 "본예산 1조 원 시대를 만들었고, 사계절 관광도시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최우수 도시 3년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서서원 유네스코(등재)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되었다며 그간의 여러 성과를 설명하고 중단 없는 시정의 연속을 위해 4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며 정읍시민의 열정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유진

섭을 시정의 중심에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 후에 이어진 후보자 간 공통질문 답변과 상호토론 질의응답 등에서도 그간 펼쳐온 시정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과 솔직한 질의로 정읍시민에게 다가갔다. 그는 정춘기요특구 활성화가 미진하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다른 후보들의 여러 견해도 긍정적으로 공감했다. 그리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했다"라며 "급하다고 대책과 설계와 계획 없이 빨리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활성화를 위한 용역도 진행했고 결과가 나와서 실행 계획도 추진 중에 있음을 밝혔다.

그는 마무리 연설에서 재임 기간 중 전반기 2년은 전임 시정의 일을 마무리하는데 투자했다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기간이 2년 정도이고 본인의 재임 기간 중 씨앗을 뿌리고 싹 발라려 했던 그리고 출발했던 사업들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향후 4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60세 이상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부안군은 고령층의 위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접종대상은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3차 접종을 완료하고 4개월(120일)이 경과된 군민이며 오는 18일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25일부터 부안 지역 16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진행한다.

사전예약은 인터넷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https://ncvr.kdca.go.kr)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예약할 수 있으며 인터넷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의 예약편의를 위해 보건소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전화 및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4차 접종은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및 노바백스 백신으로 사전예약이 원하는 백신 선택이 가능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 1~2차 접종까지는 적극 권고하며 3~4차 접종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접종이 가능하다.

한편 부안군 위탁의료기관으로는 성모병원, 혜성병원, 하나성심병원, 중앙의원, 안평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강민준내과의원, 부안내과의원, 강상구내과의원, 김용성내과의원, 부안비이내과의원, 한빛정형외과의원, 박의과의원, 현대가정의학과의원(이상 부안읍), 인신의원(계화면), 한사랑의원(진서면), 김의원(월포면)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